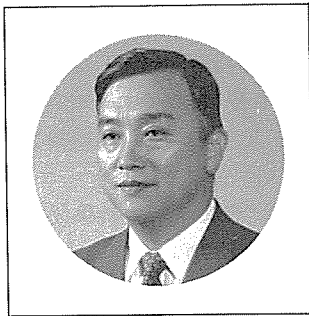


“東西間 和解의  
 물결속에서도  
 科學技術  
 보호장벽은 漸高”



鄭 根 漢  
 〈科學技術處長官〉

존경하는 權彝赫 大會長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원로선배님들과  
 國內外 科學技術人 여러분!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주최하는  
 世界韓民族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한자리에 뵈게 된 것을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련, 중국을 비롯해서 美  
 洲, 구라파 지역, 일본 등 해외에 있는 유수한 大  
 學, 研究機關, 산업체에서 학문과 연구활동에 정  
 진하는 가운데 바쁜 틈을 내어 조국의 科學技術  
 發展을 위한 일념으로 母國을 찾아와서 본 학술  
 대회에 기꺼이 참석한 僑胞科學技術人과 가족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國內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產業發展과  
 科學技術暢達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國內 科學技術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  
 여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제11차 綜合學術大會는 이데올로  
 기의 대립과 냉전체제로 지난 40여년간 離散의  
 아픔을 가지고 헤어져 살아왔던 蘇聯, 中國에 거  
 주하는 同胞 科學技術者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世界韓民族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  
 로 발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國內外 科學技術人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希望의 世紀로  
 생각하는 21세기가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마지  
 막 준비의 시기를 맞이 하여 우리는 國內外的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政治的인 면에서 東西間의 理念  
 障壁이 완화되면서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일고  
 있으나 科學技術面에서는 기술보호의 장벽이 점  
 점 높아지고 國家利益을 앞세운 치열한 경쟁은  
 날로 그 열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對內的으로는 그동안 다양한 욕구분출로 노사  
 분류 등 사회적 갈등과 수출부진에 따른 우리 經  
 濟의 앞날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견해도 나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問題들은 우리나라의 지  
 위향상에 따른 國際化的 진전과 技術環境의 변화  
 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根源的으로는 科學技術이

주도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技術革新에 의한 내연적인 발전이 미흡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방의 단계를 벗어나 독창적인 技術開發과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産業, 尖端産業에로의 構造調整過程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 최근에 이르러 科學技術人 여러 분의 노고에 힘입어 科學技術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눈에 띄게 높아져가고 産業界를 비롯한 각계의 技術開發의 의욕과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發展의 변화는 급속한 技術進歩의 時代的 배경이 이제 새로운 기술뒤틀림 없는 企業의 성장도 국가의 발전도 이룩될 수 없다는 사실이 피부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에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科學技術振興에 총력을 경주함으로써 21세기에는 國家發展 목표인 先進福祉國家를 건설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大統領께서도 금년 연두 記者會見에서 科學技術의 획기적인 진흥을 政府 5대 當面課題의 하나로 宣稱하시고 今世紀내에 「선진국 수준」의 科學技術입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1세기가 科學技術人에게 달려있다는 國民의 공감대에 부응하고 온 國民이 열망하는 科學技術 韓國을 이루는데 가일층 매진할 것을 여기에 모이신 科學技術人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생각해야 할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科學技術의 본질인 “創造”와 “革新” 없이는 새로운 지식의 발전도 技術의 進歩도 불가능합니다.

經濟成長의 원동력이요 國際競爭力 향상의 기반이 되는 創造와 革新 활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長期的인 眼目에서 사람을 잘 키우고 훌륭한 科學技術人力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그 需要가 크게 늘어날 高級科學技術 人力養成기반을 확충하고 大學의 優秀研究集團 선정, 육성을 계속 추진하

여 基礎研究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大學研究環境의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現在 낙후되어 있는 科學技術教育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科學技術의 토대를 다지는 根本的인 처방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이와같은 科學技術開發活動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양성, 기초연구, 國際共同研究와 정보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科學技術投資財源의 지속적인 확대와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科學技術投資 추세를 보면 지난 '85년의 경우 前年對比 28% 증가한 것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1회 科學技術振興會議에서 大統領께서 확고히 천명하신 2001년까지 GNP 5%는 政府와 産業界가 합심해서 투자하겠다는 뜻을 반드시 조직적이고도 단계적으로 국민합의하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는 國際協力活動強化와 國際共同研究基盤構築은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科學技術의 國際化는 科學技術發展, 産業構造의 변화와 情報社會의 대두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科學技術 외교의 확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先進科學技術을 흡수하여 우리의 수준을 시급히 끌어올리는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며 國際社會에서의 韓國의 역할과 지위를 올리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全世界에서 활동하시는 여기계신 海外同胞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또한 科學技術振興은 政府의 일개 部處나 몇몇 科學技術專門家들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과학기술이 이해되고 중시되는 社會風土를 조성하고 國家 技術發展戰略에 대한 국민적 合意形成을 바탕으로 가용 자원이 科學의 진흥과 기술 혁신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며 분산, 다기화 되기 쉬운 關聯政策과 제도를 技術革新시각에 맞추어 일관성과 종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과학과 기술이 주축이 되어 경제, 산업 및 사회 발전을 선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주도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책임있는 전문가들이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물질만을 위한 과학이 아닌 인간을 위하고 인류복지를 생각하는 과학 문화로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국가 과학 기술 정책일지라도 이 분야에 직접 종사하시는 과학 기술인 여러분들이 과학 기술 개발의 선도자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국내외 과학 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학, 물리 등 기초과학에서부터 정보 산업, 생명 공학, 재료 공학 등尖端 과학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것은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충동원하여 기술 개발과 생산성向上에 진력해 간다면 과학 기술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의 침체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21세기 선진국 진입 여부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계시는在外 과학 기술자 여러분께서도 더욱 단결하시고 祖國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母國을 자주 방문하여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종합 학술 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는 물론 해외 僑胞 과학 기술인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있을 산업 시찰 등을 통해서 祖國의 실상을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祖國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즐겁고 유익한 母國 방문 기회가 되시고 해외 同胞와 母國 국민들간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데도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학술 대회를開催하기 까지 수고하여 주신 韓國 과학 기술 團體 總聯合會 會長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학 기술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